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약4:14)

우리주 예수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문안드립니다.

지난 9월 8일 저희가 살고있는 집 주인이면서 아내와 마음을 터놓고 지내던 37살의 현지인 친구가 하나님 품으로 떠났습니다. 이전 별다른 증상이 없던 그 친구는 친구집에 며칠 다녀온뒤 3일간 심한 구토를 한뒤 정신이상증상이 보여 병원으로 이송됐고 간이 손상되었다는 의사의 진단에 약이 없다는 국립병원의 대답과 함께 아무런 치료도 받지 못한채 2일만에 소천 하였습니다. 시기심이

유난히 큰 이곳 사람들의 기질로 빈번히 발생하는 독살(Poisoning murder)의 의혹을 남긴채, 원인도 모르고 며칠만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마지막 임종을 지켜본 아내는 적잖은 충격을 받았고 친구를 잃은 힘든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모든 인생에 끝이 있음을 배울수 있는 초상집에 가는 것이 잔칫집에 가는 가는것보다 낫다 라는 전도서 말씀을 되새기며 어떻게 사는 것이 후회없는 삶일까를 다시한번 생각해 봅니다.

정글탐사 : 투루라나(Tururana) 지역을 소개합니다.

현재 탐사를 진행중인 과달카날 섬의 많은 지역이 자신들의 전통 생활방식과 종교를 고수하며 전통과 현대의 부를 동시에 영위하며 살아가는 것을 기본 가치로 살아가는 모로(Moro movement)라는 종교에 깊은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탐사를 진행하면서 모로 종교에 관해 자료를 수집하던중 탐사 방문 지역인 투루라나(Tururana) 지역이 모로의 주요 8개 구역 중 하나였다는 것과, 1985년 모로의 30주년 행사를 이곳 에서 개최할 정도로 모로의 핵심적인 지역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또한 한 마을에 3천여명의 사람들이 거주하는 큰 마을로 예외적인 지역입니다. 처음 방문때 마을 리더중 한명의 거절로 마을로 들어갈수 없었던 외부인에 대하여 배타적 성향을 가지고 있으며

4번째의 방문에서야 추장에게 성경을 전해줄수 있었던 영적인 기류를 느낄수 있었던, 그리고 미전도 부족으로 분류해도 무리가 없을것으로 생각 되는 지역입니다. 성경을 전달하며 대화를 하는 가운데 교회 설립을 해도 좋다는 추장의 승락을 얻었습니다. 이 지역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가 세워져 하나님을 향한 찬양이 울려 퍼지기를 그리고 목적없이 살아가는 이곳 많은 사람들에게 온전한 십자가의 복음이 증거되기를 날마다 기도하고 있습니다. 현재 교회 설립을 위한 소요 재정을 뽑아 구체적으로 기도하기 위해 준비중입니다. 이 모든 과정과 현지의 동역자들이 한마음으로 동역할수 있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추장에게 성경을 전해줌



마을 전경



마을 노인과 함께



마을 아이들

기 도 제 목

1. 예수님의 사랑과 성령의 충만함 가운데 거하도록.
2. 솔로몬 군도내에 거짓과 탐욕의 영이 떠나가도록. (최근 발표된 통계에 따르면 남태평양 23개국중 2번째로 부정부패가 심한 나라 입니다.)
3. 솔로몬 부족과 가족간에 시기와 분노의 영이 사라지도록.
4. 투루라나 지역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가 설립될수 있도록 협력하는 현지인 동역자들이 한마음으로 나아갈수 있도록 (구체적인 예산을 뽑는 중입니다)
5. 김은미 선교사가 유치원 사역을 진행중인 2지역(쓰레기 처리장, 룡가:수도인 호니아라에서 가장 열악한 지역) 사역을 통해 이 지역 아이들이 예수님을 만나고 그 지역 사람들도 전도되도록
6. 사역가운데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과 지혜가 부어지도록.
7. 가족의 건강과 예찬이,예담이 학교생활가운데 지혜가 넘치도록.



조나단 형제 내외와 함께..

제주도에서 1년여간 사역후 뉴질랜드 두루리 공동체에서 사역하고 있던 조나단 형제가 5명의 자녀들과 함께 고향인 솔로몬으로 돌아왔습니다. 6개월간 머물며 이땅을 향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바라보는 기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열악한 상황가운데서도 늘 감사와 말씀가운데 살아가는 모습이 참 도전이 되는 형제입니다. 이 가정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온전히 바라볼수 있도록 함께 중보 부탁드립니다.

솔로몬 정보: 지진(Earth Quake)

지난 7월 26일 강도 6.5의 강진이 솔로몬 군도 수도가 위치해 있는 과달카날 섬 남부 인근 해상에서 발생했습니다. 저녁 10경 아이들은 이미 잠든 상황에서 발생한 지진은 1-2분간 엄청난 흔들림과 공포감을 느끼기에 충분했습니다. 강렬한 지진 이후에도 여진이 다음날 까지 이어졌습니다. 2007년에 이미 강도 6.8의 지진을 경험한 저희는 지진이 잠잠해 지자 바로 취침에 들어갔다. 그러나 강진은 처음 경험함 이곳의 많은 외국인들은 강력한 공포감에 잠을 잘수가 없었습니다. 환태평양 조산대의 핵심지역에 속해있는 있는 솔로몬 군도는 강도 5.0이하의 지진은 수시로 일어나고 있고, 미국 지질조사



The permanent home that collapsed as a result of the Wednesday's earthquake.

지역 신문에 실린 지진으로 붕괴된 주택

국에 따르면 지난 100년간 발생한 지진가운데 상위 20위 안에 19건이 모두 이곳 환태평양 지진대에서 발생했다고 합니다. 목조주택이 이곳의 일반적인 주거형태인 관계로 인명피해 없이, 주택 수채가

붕괴되는 정도의 피해가 확인되었 습니다. 비슷한 강도의 지진이 중국에 발생 되었을때 수만명의 피해자가 발생된것을 보면 그 강도를 짐작하실수 있지 않을까 생각 됩니다.



연락처

주 소
P.O Box 86 Honiara
Solomon Island

이메일
cjh5690@naver.com
cjh5690@gmail.com

전 화
+677-7456108
+677-7558001